

「고추밭」

시드론 뉘새속에서
고 빨—간살을 드러내 놓고,
고추는 芳年된 아가씬양
땃별에 작고 익어간다。

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
밭머리에서 어정거리고
손가락 너어는 아이는
할머니 뒤만 따른다。

一九三八、十月、二十六日、

고추밭

시들은 잎새 속에서
고 빨—간 살을 드러내 놓고,
고추는 방년된 아가씬 양
땃별에 자꾸 익어간다。

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
밭머리에서 어정거리고
손가락 너어는 아이는
할머니 뒤만 따른다。

1938. 10. 26.